

성자인 내가 선생 통해 행한 것을 증거하여라

작성일 : 2012. 5. 15(화)

작성자 : 주희빈

(교역자 모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성자 주님의 말씀

사랑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두 손을 빌며 애원한다.

제발 나의 몸인 선생 좀 제대로 증거해 다오.

내 애인 선생을 잘 드러내 주길 바란다.

내가 지금껏 선생 통해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전지전능한 내 아버지께서

선생 통해 이루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당당히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느냐.

어떤 종교에서는 수많은 자들이 모임 때

비가 안 온 것을 두고두고 증거하며

그를 통해 역사한다 외치는데

너희는 선생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왜 눈먼 소경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냐.

본 자들은 증거해야지.

겪은 자들은 증거해야지.

수많은 증인들이

성자인 나와 선생을 증거해야 한다.

두 증인만이 증인이 아니다.

너희 삶 속에서 보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도하여

그때 선생 통해 누가 역사했는지 깨닫고

그것을 전심 다해 증거해 주길 바란다.

선생은 오직 내 몸이 되어 행한 것밖에 없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나의 행함이었고

선생이 이 월명동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자인 나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어라.

수많은 돌들이 외치고 있다.

저 세상은 이 시대 사명자로 인해

모든 운명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 외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돌들이 외치기 전에 너희가 외쳐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누가 그리 행했는지 알지 못하니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자들이 많다.

세상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의 자연현상이다 생각하며

육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성자인 내가 선생 통해 행했음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인

내 아버지가 역사하였음을 깨닫게 해 주어라.

이 시대는 선생 통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시대 주인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라.

바통 터치하여 뛰고 달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역사가 진행되어 갈지라도 모르게 된다.

그러니 섭리에 있는 너희부터 시대의 눈을 떠라.

성자인 내가 누굴 쓰고 나타나 행하는지

너희부터 눈을 떠야 한다.

선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좌우될지니

사랑하는 자들아, 선생을 위해 기도하여라.

선생이 이 시대 모든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으니

선생이 기도하는 그 시간

너희도 같이 기도하는 자 될지어다.

오늘은 교역자들이 모였으니

너희부터 선생이 무엇을 행했는지 정확히 알도록

다시 배우고 깨닫고 증거하길 원한다.

선생 통해 역사하는 만왕의 왕 성자 주로다. 사랑해.